

# 막히든 말든 막무가내 공사...봉선동은 '교통지옥'

광주시 배수지 시설 더딘 공사로 분통 터진 주민·운전자 민원 빗발  
차로 축소에 차량 뒤엉키며 아수라장...도로 곳곳 패여 '위험천만'

광주시가 시민배려 없는 늑장공사를 해 빈축을 사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 7월부터 남구 봉선동 무 등 1차 교차로 구간에서 '봉선배수지' 건설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더딘 공정 탓에 봉선동 일대가 출·퇴근 시간은 물론 낮 시간대에도 극심한 교통정체를 빚고 있다. 시민들의 불편 호소가 잇따르고 있음에도, 광주시는 "별다른 방법이 없다. 갑자기 암반이 나와 공사가 어렵게 됐다"는 등 무대적으로 일관하고 있다.

18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총 사업비 455억원을 투입해 남구 봉선·방림동 일대에서 '봉선배수지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새로 조성되는 동구 용산지구에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공사로, 완료 시점은 오는 2020년까지다.

문제가 된 봉선동 구간(동아여고에서 무등 1차 앞 교차로 일대) 공사는 지난 7월 17일부터 시작됐으며, 11월말 완공을 목표로 중사중이다.

시는 현재 해당 구간 차로 중 2개 차로를 통제해 뒤 굴착작업을 하고 있다. 도로 아스콘을 깔아낸 뒤 3m정도를 파내고 연장 3m, 지름 900mm의 배수관을 묻고 있는 중이다.

하지만, 광주시가 주민과 운전자를 고려하지 않는 '공사 편의주의'로 일관하면서 봉선동 일대가 3개월 넘게 '교통지옥'이 되고 있다. 특히 이미 공사를 마무리하고 임시포장을 한 도로 중 일부도 곳곳이 갈라지고 패여 있어 교통사고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실제 이날 오전 7시 30분께 찾아간 동아여고 정문 쪽은 편도 2차로 중 1개 차로가



18일 광주시 남구 봉선동 무등1차아파트 앞 교차로에서 봉선배수지 시설공사가 진행되면서 교통 혼잡이 빚어지고 있다.

막히면서 주차장을 방불케 했다. 특히 방림터널사거리에서 무등 1차 교차로 방면 도로의 경우 공사 때문에 차가 축소되면서 공사 덩크트럭 등 대형 차량과 일반 차량이 뒤엉켰다. 위험하게도 그 사이를 여고생들이 아슬아슬하게 비껴 지나가고 있었다. 차량들도 1분이면 통과할 수 있는 해당 구간(280m)을 10여분만에 겨우 통과하는 모습이었다.

시민들은 "하필 한창 막히는 출근 시간에 공사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공사로 차선이 좁아진데다, 대형 공사차량까지 가세한 탓에 길이 더 막히고 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해당 구간 공사는 봉선동은 물론 인근



18일 광주시 남구 봉선동 무등1차아파트 앞 교차로에서 봉선배수지 시설공사가 진행되면서 교통 혼잡이 빚어지고 있다.

제2순환도로 등 여러 구간에서 연쇄적으로 악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광주일보 취재진이 이날 오전 8시 화순과 제2순환도로 등을 통해 봉선동으로 진입하는 관문인 용산터널에서부터 무등1차 앞 교차로까지 직접 차량 운행을 해봤더니, 겨우 1.1km 구간을 운행하는 데 10분이상이 걸렸다. 해당 구간은 평소 3분 이내면 통과할 수 있는 곳이다.

봉선동 주민 임동민(49)씨는 "동아여고 앞에서 공사가 시작된 후부터 출근길 정체가 심각하다"면서 "해당 구간에 형식적으로 경찰 몇명 배치해놓고 교통대책을 다

한 듯한 행태에 화가 치민다"고 말했다.

일부 주민은 해당 공사로 아파트 등 거주 공간에 금이 가는 등 안전사고 등을 당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내고 있다.

더 큰 문제는 해당 공사가 동아여고 앞 구간에서 끝나지 않고, 오는 2020년까지 동구 용산지구까지 이어진다는 점이다.

석달 넘게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지만 광주시는 시민들의 불편을 덜기 위해 경찰과 협조해 의경들을 수시로 배치하고 오전 8시 이전부터 공사를 시작하는 등 최대한 빨리 끝내기 위해 노력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여기에 광주시는 동아여고 인근에서 진행된 굴착과정 중 암반층이 발견되면서 올해 안에 도로 복구 공사를 마치는 게 어렵다는 입장인어서 시민 불편이 해를 넘기게 됐다.

광주시 상수도 사업본부 수도정비 담당자는 "시민들의 불편을 최대한 감안해 공사를 서두르고 있으며, 경찰청의 협조를 얻어 미흡하나마 교통대책도 마련했다"면서 "다만 동아여고 인근에서 일반 등 장애물이 발견돼 다시 공사 계획을 수립해야 할 듯 하다"고 해명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불법 도박사이트 개발자·서버 임대자·운영자 일망타진

광주지검, 전국 첫 동시 검거  
사이트·도메인 1811개 폐쇄

검찰이 불법도박 사이트를 직접 개발해 판매하고 서버를 임대한 업체와 사이트 운영자 등을 일망타진했다. 검찰이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를 붙잡은 적은 있지만 개발자와 서버 임대업자를 동시에 검거한 것은 전국 첫 사례로, 도박사이트와 도메인 1811개를 일시에 폐쇄하는 성과를 냈다.

광주지검 강력부(김호삼 부장검사)는 "중국 등 해외에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로 도박사이트 총괄운영자 마모(33)씨 등 12명을 적발해 10명을 구속기소하고, 1명은 불구속 기소, 도주한 1명은 지명수배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또 중국에 개발실을 갖추고 도박 사이트를 제작해 운영자에게 공급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로 프로그램개발 총괄운영자 조모(35)씨와 웹툰작가 이모(33)씨 등 11명을 적발, 8명을 구속기소하고 도주한 3명을 지명수배했다.

검찰은 일본에 서버 300대를 개설해 서버를 임대해 준 운영자 황모(46)씨 등 5명도 붙잡아 1명을 구속기소했으며,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마씨와 국제 P.J파 김모(33)씨, 무등산파 주모(29)씨 등은 2016년 3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중국과 광주 등지에서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2개를 운영하며 대포통장을 이용해 147억원을 챙기고 3억 8000만원 상당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다.

도박사이트 프로그램 개발업체 총괄 운영자인 조씨 등 일당은 2015년 5월부터 지난 7월까지 도박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프로그램 제작을 의뢰를 받아 중국 칭다오와 제주도 등에서 도박사이트 100여개를 설계·제작·관리하고 그 대가로 25억원을 챙겼다. 조씨 등은 도박 프로그램 1건당 평균 300만원 정도를 받았으며, 이후 업데이트 비용 등으로 추가 이익을 낸 것으로 드러났다. 도박사이트 개발자 중 웹툰 작가 이씨는 3년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업데이트 한 비용으로 4억원을 챙겼다.

해외 도박사이트 서버임대업자인 황씨 등 5명은 2014년 5월부터 지난 8월까지 일본 도쿄에서 서버 300여대를 개설해 도박사이트 개발자에게 서버를 임대하고 74억

원을 받았다. 이들은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이 요청하면 경쟁업체 사이트에 대한 DDos 공격 등 해킹 공격에 나서서 한편 상 대적으로 해킹 방어시스템을 제공하기도 했다.

검찰은 도박사이트 운영자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도박 사이트 개발자와 서버 임대업자의 연결 고리를 발견한 뒤 4개월간의 수사 끝에 총 28명을 적발해 19명을 구속 기소했으며, 범죄 수익금 28억여원을 추정 보전했다. 또 현금 2억 1000만원도 압수했다. 이번 수사로 도박사이트 개발자와 서버 임대업자 검거로 도박사이트 서버 33개, 도메인 1474개도 자진 폐쇄됐다. 검찰은 현재 폐쇄된 도박사이트 중 모 사이트의 경우 거래된 도박자금만 3300억원대에 이르는 등 1조원대 이상의 도박자금이 거래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중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여고교사가 학생 폭행" 수사 의뢰

순천의 한 여고에서 교사가 학생을 때렸으며 학부모가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18일 순천경찰에 따르면 이 학교 학부모 최모(40)씨는 "지난 17일 오전 순천 모 여고 3학년 교실 복도에서 교사 A씨가 딸을 수차례 폭행했다"며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학부모 최씨는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담임교사 A씨가 휴대전화를 가져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딸의 볼을 잡고 흔들고 뺨과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했다"며 "정밀 검사를 했더니 뇌가 흔들렸다는 소견이 나와 약까지 처방을 받았다"고 말했다.

최씨는 "내 딸이 교사에게 맞는 모습을 다른 학생도 목격했으며 병원에서 2주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받았다"고 말했다. 폭행 사실을 확인한 학교 측은 A교사를 담임 업무에서 배제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 코카콜라 광주공장

### 노조-운송사 갈등 봉합

운송비 인상을 놓고 한달여간 갈등< 광주일보 2018년 9월18일자 7면>을 빚었던 코카콜라 광주공장 운송사와 화물노조의 협상이 타결됐다.

18일 화물연대 광주지부에 따르면 코카콜라분회와 운송사 (주)제이비사(옛 GU상사)는 8시간의 마라톤 협상 끝에 지난 17일 밤 11시30분께 합의안에 서명했다.

합의안에는 노조에 대한 배차 중지 조치를 풀어 계약을 유지하고 고용을 승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공병·불량제품 운송 등에 대해서는 사측이 운송노동자들에게 실비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으로 대가를 지급하기로 했다.

사측은 공정 배차와 화물연대 활동을 보장해 주기로 했으며 이번 농성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은 묻지 않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이번 농성에서 쟁점이었던 운송료 인상에 대해서는 내년 원정 코카콜라와 GU 재계약 1개월 전에 재협상하기로 했다.

한편 화물연대 광주지부 코카콜라분회 노조원들은 '운송료 현실화' 등을 요구하는 현수막을 차량에 내걸었다는 이유로 노조 코카콜라 운송사 GU 측으로부터 해고와 다를 바 없는 배차 배제 조치를 당했다며, 지난달 13일부터 공장 정문 앞에서 농성했다. 이 과정에서 충돌이 빈번하게 발생해 노조원과 연대단체 회원 등 11명이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연행돼 입건되고 노조와 경찰 양측 12명이 다쳤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 대변보고 버린 담배꽂이에 절도 혐의

6년 전 광주의 한 상가건물에서 물건을 훔친 50대가 범행 현장에서 대변을 보고 버린 담배꽂초 때문에 경찰에 걸렸다.

18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김모(52)씨는 지난 2012년 5월 29일 오후 6시에 광주 남구 월산동 한 상가 건물 창고에서 40만원 상당의 전동 드릴을 훔쳤는데, 당시 경찰은 현장에 있던 대변 옆 담배꽂초에서 DNA를 확보해 놓고도 용의자를 지목하지 못해 그동안 미제사건으로 분류해왔다는 것.

김씨는 지난 5월 광주 서구 재개발지역에서 빈집털이를 하다 붙잡히면서 6년 전 절도현장에서 버린 담배꽂초 DNA와 일치한다는 사실이 확인돼 경찰에 붙잡혔는데, 김씨는 경찰에서 "당시 범행 후 배가 아파 현장에 서 대변을 보며 담배를 피웠는데 꽂초 때문에 발견될 줄 몰랐다"고 진술.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지오옥션 부동산 중개법인(주)**

**경,공매 컨설팅**

**수익형 추천 물건**

- ★ [건물] 광주 동구 금남로5가(중심상업지역)  
토지:912,50㎡(276평) 건물:1,477,64㎡(446.9평)  
지하층 지상4층 **매매가:48억** 대로변, 전시효과최상
- ★ [건물] 광주 광산구 송정동 (일반상업지역)  
토지:1,349㎡(408평) 건물:1,350,03㎡(408.3평)  
지하층 지상4층 **매매가:61억** 8차선대로변
- ★ [건물] 광주 북구 일곡동  
토지:7,662.4㎡(2,317.8평) 건물:6,864.61㎡(2076.5평)  
지상3층 **매매가:105억** 아파트밀집지역,복합사우나건물  
(보증금 4억3천, 월수입 2천7백)
- ★ [건물] 광주 서구 농성동 (준주거지역)  
토지:3,104.6㎡(939.1평) 건물:11,543.18㎡(3491.8평)  
지상9층 **매매가:100억**  
대로변, 지하철역세권, 전시효과 최상, 수익률최상
- ★ [건물] 광주광역시 광산구 선암동(근린상업지역)  
토지:2,485.20㎡(751.77평) 건물:5,802.89㎡(1755.37평)  
지상3층 **매매가:85억** 선운지구 상권밀집지역  
(보증금 6억, 월수입 3천)

**병원**

- ★ [의료시설] 광주 동구 학동  
토지:619,62㎡(187.4평) 건물:1,458,86㎡(441.3평)  
지하층 지상4층 **매매가:30억** 아파트 밀집지역  
대로변, 조대병원인근
- ★ [의료시설] 광주 동구 대인동  
토지:514,40㎡(155.6평) 건물:2,143,08㎡(648.2평)  
지하층 지상5층 **매매가:32억**  
약국, 병원, 업무시설 적합
- ★ [의료시설]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토지:580,40㎡(175.57평) 건물:2,889,86㎡(874.18평)  
지하2층 지상6층 **매매가:37억**  
상권밀집지역에 위치, 주변 아파트밀집지역

**토지**

- ★ [토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강정동  
토지:3,891㎡(1177평)  
**매매가:35억3천1백만**
- ★ [토지]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토지:1948㎡(589.27평)  
**매매가:29억4천5백만**  
신양파크호텔에서 무등파크호텔가는  
도로의 카페거리에 위치  
투자가치최상

**광주 · 전남 병원건물(요양, 한방)매매 · 임대 다량보유, 사우나건물 전문상담**

공인중개사 전민규 062-714-2251, 010-4234-8640